

문화유산, 자연환경, 대기환경, 수질 및 수생태계 등 도시를 이루는 다양한 영역의 평가 요소들이 갖춰져야 한다. 정책 및 제도의 환경관련 DB의 구축은 녹색성장을 이루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요소이다. 강동구에서는 기본적인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담당 공무원, 위원회 설치, 주민과의 연계, 참여조직 등을 핵심요소로 제시하였다.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에서 생태·문화 예산의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작성유무를 핵심요소로 제시하였다. 이는 도시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다. 재해관련 예산에서는 예산 금액의 증감과 목적에 맞는 사용을 핵심요소로 제시하였다.

3) 도시환경 및 문화의 질 핵심요소

환경질의 부하량에서는 대기, 물, 소음관리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녹색성장지표, 저탄소 녹색도시의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환경 관리의 지표들을 고려요소로 제시하였다. 특히,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녹지율의 증가, 상수도 보급률, 완충녹지의 설치 등을 핵심요소로 제시하였다.

환경질의 쾌적성에서는 에너지 관련지표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생활 폐기물 수거량을 고려요소로 제시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증감, 사용 가구수, 작년대비 폐기물량의 증감 등을 핵심요소로 제시하였다.

환경질의 안전성에서는 에너지 자립도와 생태·문화서비스를 세부 지표로 하였으며, 환경친화적인 수급구조 실현을 위해 에너지 자립도 비율과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생태서비스, 문화서비스를 고